

어린이 책꽂이

▲관계=시인 안도현과 그림동화작가 이혜리가 함께 쓴 동화책, 도토리 하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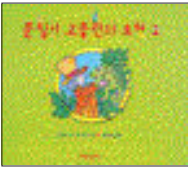


가 함께 쓴 동화책, 도토리 하나가 갈참나무가 되는 과정을 그린 성장이야기. 도토리

와 낙엽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관계의 중요성과 의미를 일깨워준다.

(계수나무·9천800원)

▲분실이 고블린의 모험=숨은 그림찾기의 형식을 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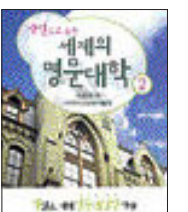


한 그림책. 항상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니는 분실이 고블린과 수줍음이 많고 게으른 카멜레온이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토마토 하우스·9천원)

▲사진으로 보는 세계의 명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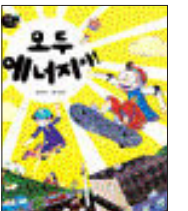


(미국편 1·2권)=해의 명문대 가운데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 아이비리그

및 동부 명문대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만화와 사진들로 재미있게 꾸었다. 아이비리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인터뷰와 설문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외이즈멘토·각권 1만2천500원)

▲모두 에너지=어려운 과학원리를 만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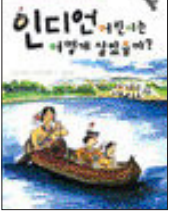


알기 쉽게 풀어쓴 '똑똑한 과학 그림책 시리즈'. 물리학 교수가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 원리와 속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웅진주니어·8천500원)

▲인디언 어린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 고대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은 역사학 습동화. 드넓은 북미대륙을 누비며 평화롭게 살

았던 인디언들의 삶이 생생하게 녹아 있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500원)

클래식처럼 달콤한 수학 이야기

수학 콘서트 박경미 지음

'덧셈·뺄셈 할 줄 알고, 돈 계산만 플러지 않으면 되지 실생활에 수학이 무슨 소용이 있었어?'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때론 다르게 생각되는 클래식 음악이 대중가요에 응용되고,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사용되듯 수학도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다.

'아무 적에도 쓸모없을 것만 같은' 수학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가져다 준 것일까. 철학자 플라톤은 "수학은 영혼을 진리와 빛으로 이끌어 주는 학문"이라고까지 칭송했다. '수학비타민'(중앙M&B 펴냄)으로 생활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던 박경미(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이번에는 수학으로 음악회를 열었다.

'수학콘서트'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수학이 어떤 방식으로 예술이나 인문, 사회과학과의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책이 일반적인 수학교양서를 한 차원 뛰어넘어 고등학생 이상의 수학 기초지식을 가진 사람의 눈높이에 맞



춰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산품의 길에 찍힌 바코드를 보며 '편리해서 좋은 한데 바코드에 찍힌 금액이 더 높게 나와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음직 하다. 담은 '상상에 불과하다'이다.

마코드를 이루고 있는 13개의 숫자 중 마지막에 위치한 체크 숫자가 오류를 방지하기 때문이다.

체크 숫자는 홀수 번째 수들을 더하고, 짝수 번째 자리에 있는 수들을 3배 해서 더한 총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정한다. 이렇게 하면 마코드의 어느 두 수가 뒤바뀌어 입력될 경우 앞의 12자리와 체크 숫자가 미리 설정한 수학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류의 경고를 내게 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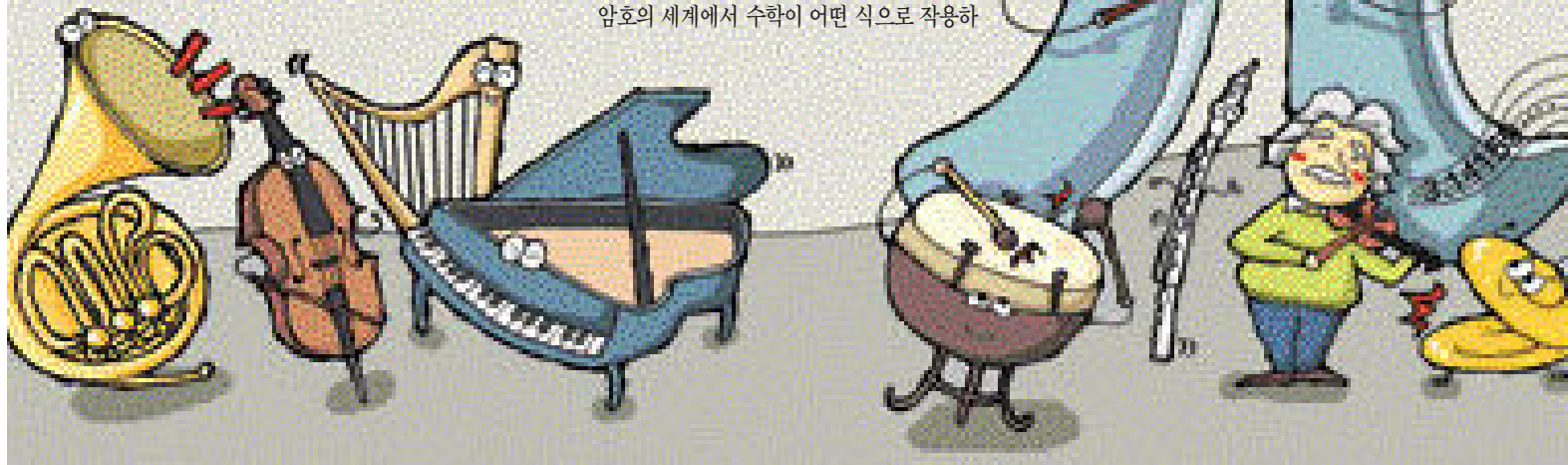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에 숨겨진 수학은 그리 낯설지 않다. 저자는 리그전과 토너먼트전 이 갖는 경우의 수들을 살펴본 뒤, 지난 3월 열린 '야구 월드컵' WBC(World Baseball Classic)에서 한국이 일본과 3번 붙어 2번 이기고 3위에 머무른 반면 일본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불합리'를 설명한다. 압호의 세계에서 수학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

는지를 들려주는 데목에서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가로·세로·대각선의 합이 같도록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마방진'의 세계는 또한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 골치아픈 수학은 저자를 통해 인문, 철학, 사회과학, 영화, 오페라 등으로 종횡무진한다.

저자는 콘서트의 지휘자답게 7개의 주제를 콘서트도, 에퀴드, 즉흥곡, 디베르티멘토, 왈츠, 랩소디, 심포니 등의 별칭으로 이름지었다. 이미 밝혔듯 '일반적인 수학교양서를 뛰어넘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저자는 "(어려운 부분을) 따로 배제했으니 생략해서 읽더라도 전체적인 이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동아시아·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독서광 장정일의 인문학 에세이 집

장정일의 공부 장정일 지음

여섯 권의 독서일기를 낸 신인이자 소설가 장정일이 이번에는 책읽기를 통한 공부를 시도했다.

'장정일의 공부'는 독서광으로 소문난 저자의 전작, '장정일의 독서일기'와 연장선 상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독후감에서 끝나지 않고 '사유하고 비판하는' 인문학 에세이 형식을 택했다.

저자는 23개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공부'한다. 박노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과 '죄주는 있어도 아래는 없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단상을 끌어내고, 고미숙의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 민족·색수 엘리트·병리학'을 통해 근대 계몽기를 짚어본다.

모차르트를 알기 위해 알로이스 그라티어·폴 맥가·필립 솔레르스 등의 저작을 집어들고, 나치와 히틀러를 위해 오인식·안인희·귀도 크롬·슈테판 램버트르를 이어지는 독서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 읽고 싶은 책 목록이 늘어났다면, 저자의 의도는 성공한 것이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친일 연구에 일생 바친 임종국 선생 삶

임종국 평전 정운현 지음

해방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유럽의 친나치 청산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최초의 친일 문화 연구서 '친일문학론', '친일파총사'(전 10권)를 쓰는 등 평생 동안 친일 연구에 몰두했던 임종국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종국 평전'은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장을 지낸 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운현씨가 친일 연구에서 얻은 자료와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쓴 것이다.

저자는 임종국의 어린 시절 뿐 아니라 '친일문학론'의 집필 동기, 시인이기도 한 선생의 미발표 시 등을 책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두 번의 이혼과 재혼 이야기나 화장품 외관원을 했던 일 등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선생의 면모는 솔직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 부록으로 실린 저자의 '집필일기'는 또 다른 읽을 거리다.

(시대의창·1만6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허영만 '식객'

지난 여름 한 대형 서점 선물코너에서 T셔츠를 하나 샀다. 불비는 인과 속을 무시코 지나가던 필자를 잡아 세운 건 '아름'이었다. 우주소년 아톰, 초등학교 시절 어두운 동네 만화가 계에서 집에 갈 생각도 잊게 하던 그 만화의 주인공이 T셔츠에 능률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 반가움이라니, 노란 바탕에 아톰이 크게 그려진 그 옷을 사면서, 입을 계획 없이 그냥 좋아서 옷을 산 것은 난생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이 책 읽기를 참 잘했다 싶은 만화책이 있다. 허영만의 '식객'이다. 14권까지 출간된 이 긴 만화에는 다른 어느 책에서 느끼지 못한 재미, 감동, 정보가 들어 있다. 음식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각각의 이야기마다 감칠 맛 나는 사연과 깊이가 스며들어 있다.

소형트럭에 음식재료를 싣고 다니며 파는 주인공 성찬은 때로는 우리가 무시로 먹는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 음식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 책은 우리 음식에 의미와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 저자는 고구마 하나로 흉악한 사형수의 눈물을 이끌어내고, 산나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땅과 바다를 끼안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설렁탕 한

음식의 소중함·가치 일깨우기



그릇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흉어라는 특별한 음식의 특별한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저자는 꼼꼼히 묘사한다.

밥상에 놓여있는 김에서 완도바다의 싱그러움을 맛있게 하고, 불판에 올려진 갈비에서 소를 잡아 빼와 살을 발라낸 장인들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또 타락죽과 같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궁중음식을 발굴하기도 하고, 쉽게 요리하는 법도 곁들여준다.

아니나 다를까 저자는 우리 남도 사람이다. 그는 갖김치를 먹으며 자랐으며, 매생이국을 추운 겨울에 싱싱하게 먹는 것이 음식에 대한 예의임을 몸으로 알고 있다. 하여 식도라가 중에서도 저자는 진귀한 음식을 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음식에 스며있는 정성과 법도를 음미하며, 허가 아닌 가슴과 사랑으로 음식을 감별하는 차원의 애호가인 것 같다.

원숙한 만화가의 세련된 그림이라는 장점 말고도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은 저자가 이 책을 머리와 허벅지만이 아니라, 발로 쓰고 그랬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음식을 현장에 가서 보고, 만드는 요리사들을 만나고, 고증을 통해 확인하면서 만들어진 글과 그림이기에 우리 음식에 애착을 갖게 하는 좋은 입문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식객'은 먹는 행위를 따뜻한 음식문화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 책을 읽은 후부터 필자는 한번 가본 적도 없는 도시 포항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이틀테면 포항은 눈발 날리는 정월, 앞바다가 보이는 주차에서 잘 말린 과메기를 죽죽 씹어 다시마에 싸먹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항구로 나에게 다가온다.

만화책 '식객'은 분명 경이로운 책이다. 문병훈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극동대학교수>



Advertisement for 'Korea International Marriage Agency'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featuring a coupl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Waring' (와레이) kitchen appliances, highlighting features like '35~75% energy saving' and 'no oil, no gas'.